

III. 시장 정보

1. 식품소비 트렌드

<2010-2012년 영국 식품소비량>

구 분	2010	2011	2012
식품소비 (US\$10억)	114.3	119.9	119.3
식품소비 (GBP10억)	73.74	74.47	75.96
1인당 식품소비 (US\$)	1,842	1,921	1,899
1인당 식품소비 (GBP)	1,189	1,193	1,210
총 식품소비 증가량 (GBP y-o-y)	3.56	1.00	2.00

출처: Business Monitor Information (2013.1.16)

□ 농식품 소비량 파악 통한 소비성향

○ 식품 트렌드의 변화

- 다양하고 세련되며, 평균적으로 풍족한 소비자들에 의한 시장 분할

- 식품의 유래와 생산방식,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 생활방식의 변화

- 세계화에 따라 외국 식품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지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시도가 활발함

- 최근 영국 식품시장의 최대 화두는 건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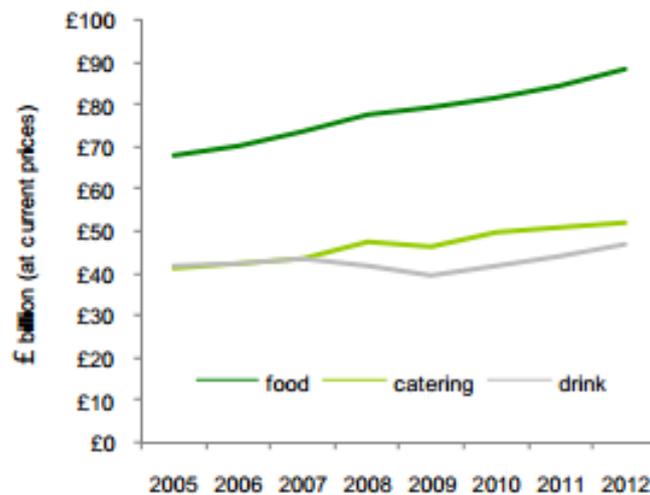
- 자국 내 비만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위험성 강조,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됨

- 식품 선택 시 어떤 성분이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지, 식품표시에 관심을 더욱 가지고, 판매사도

식품성분을 고려하여 제품 생산

< 영국의 식품소비 변화 >

Chart 14.6 Consumers' expenditure on food, drink and catering



Source: Consumer trends, (ONS).
Food includes non-alcoholic drinks; Drink includes alcoholic drink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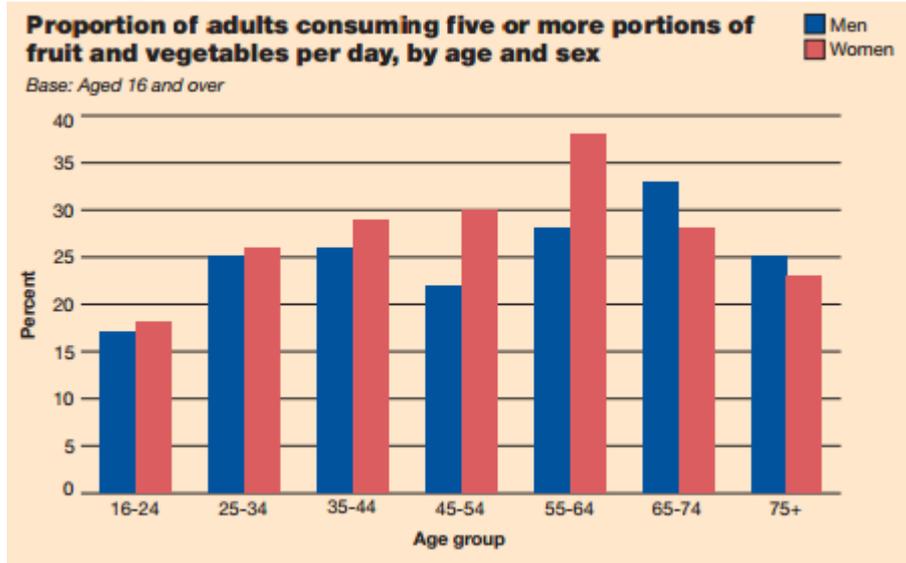
출처: Agriculture in the United Kingdom 2012, Defra

- 영국 소비자들의 식품 및 음료부분에서의 지출과 공급량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음.
- 2012년에는 1천 팔백 칠십억 파운드로 4.2퍼센트 성장하였음.
- 높은 식료비에 대해 소비자들은 외식의 감소, 알코올 음료의 구매 감소, 그리고 가정에서의 싸고 질 낮은 식품의 구매로 반응하였음.
- 높아진 식료비를 포함한 현행 가격에 있어서, 영국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전 해인

2007년보다도 전체적으로 13퍼센트나 더 소비함.

- 그 중, 식품은 20퍼센트로 가장 높은 성장을 보여줌.

○ 과일과 야채의 소비량



출처: Health Survey for England 2009(NHS Information centre)

- 5-A-day는 과일 주스를 포함한 신선한 과일과 야채의 모든 구매량으로 성인 분량인 80그램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수치임

- 남성보다 여성이 권장 5개 이상의 하루 과일과 야채를 소비함.(남성의 25%, 여성의 28%)

- 남성 28%와 여성 32%가 적어도 매일 다섯 부분을 소비했을 때, 이 비율은 2008년에 보고된 것과 유사하며, 2006년보다는 약간 낮음.

- 소비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16~24살 사이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다가 오래된 연령으로 갈수록 차이가 높아져 55~64사이 최대 차를 보임. 그러다가 65~75사이는 다시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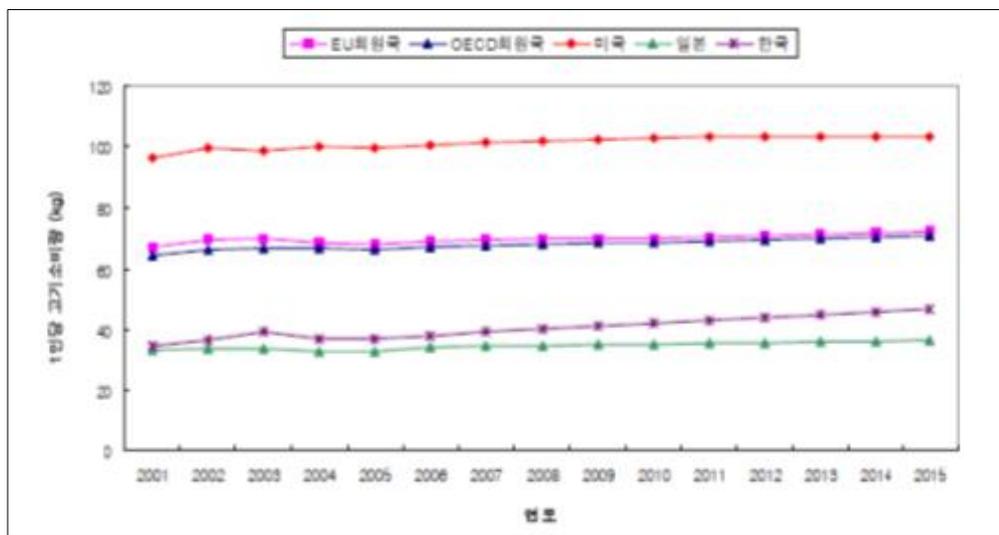
- 소비의 차이는 고소득과 연결되는데, 고소득의 32%의 남자와 37%의 여자가 이러한 비율로 소

비를 보인데 반해, 저소득에서는 18%의 남자와 19%의 여자가 소비를 했음..

○ 육류소비량

- EU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미국보다는 적지만, OECD 회원국보다는 높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음

< 국가별 1인당 육류소비량 및 향후 예측치 >



출처: OECD & FAO (2013.1.15)